

# “자영업자 부담 해소” 환영 vs “환경정책 퇴보” 비판

## 일회용품 사용 규제 철폐 엇갈린 반응

“기존에 구매하던 일회용품을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설거지를 할 인력을 추가로 뽑지 않아도 돼 다행입니다.”, “일회용품 줄이기는 기후위기 속 탄소중립을 위한 당연과제인데 이를 역행하는 선심성 환경정책입니다.”

광주·전남 자영업자와 환경단체는 7일 정부가 일부 일회용품의 사용 규제를 철폐하거나 단속을 미루기로 한 것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이날 환경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책브리핑을 열고 ‘일회용품 관리방안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비닐 봉투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단속 중단 ▲종이컵 일회용품 사용 규제 품목에서 제외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

## 자영업자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사용에 설거지 인력 아껴” 환경단체 “총선 앞두고 표 의식...전 세계적 흐름에도 역행”

는 막대 사용 금지 무기한 연장 등이다.

지난 2021년 일회용품 규제 강화 정책을 발표하고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고려해 지난해 11월부터 1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일부 일회용품 사용 금지 조치가 철폐되거나 계도기간을 연장시켰다.

이번 개정안으로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사용이 금지됐던 종이컵은 금지품목에서 빠졌고,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금지 계도기간은 연장됐다. 또 면적 33㎡가 넘는 편의점과 제과점 등에서도 비닐봉지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당장 오는 24일부터 개정안이 적용됨에 따라 광

주지역의 카페나 식당 자영업자들은 환영 일색이다.

광주시 북구 용봉동에서 프랜차이즈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이동현(37)씨는 “계도기간임에도 플라스틱 빨대를 계산대 앞에 놓아두면 일회용품을 쓴다며 본사에 민원을 넣는 손님들도 있었다”며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적지 않았는데, 규제가 완화된다고 하니 마음이 편하다”고 말했다.

김형 광주소상공인연합회 사무국장은 “포장용기의 경우 환경규제에 맞는 기성품으로는 불가능해 최대 3배까지 비싼 값을 주고 주문제작해야 했다”며 “고물가에 경기도 좋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비용

이 들다보니 소상공인들은 경제적인 부담이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규제 완화는 소상공인들에게 반가운 정책”이라며 “다만 이제 막 개정이 발표된 만큼 현장에는 혼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환경단체는 시대적 과제이자 국정과제인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 정책이 후퇴했다며 선심성 제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소상공인의 표를 의식했을 뿐 기후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전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한 정책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환경운동연합(환경단체)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무려 2년 전 예정돼 있었던 규제를 계도기간으로 유예시키는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예정된 제도도 제대로 시행하

지 않는 정부의 태도에 일회용품 규제를 준비하는 소상공인의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일회용품 규제에서 과태료와 단속이라는 강제력이 없다면 자영업자들이 값싸고 편한 방법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따라갈 수 밖에 없다”면서 “규제보다는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에 중점을 두겠다”는 정부의 목표는 소상공인을 위한다는 핑계로 환경정책을 사실상 방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단체는 “지난 9월 12일 일회용품 보증금제를 지자체 여건에 맞게 시행하겠다고 하며 제도를 폐기한데 이어 종이컵과 빨대까지 규제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환경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면서 “지금 당장 일회용품 규제를 시행하라”고 말했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지리산 '겨울왕국' 구례 성삼재 최저기온이 0.9도를 기록한 7일 지리산 국립공원 반야봉 일대에서 올해 첫 상고대가 피었다. (지리산국립공원 전남사무소 제공)

## 정성국 5·18 공로자회 회장 ‘5년 자격 정지’

정성국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 공로자회 회장이 5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지난달 황일봉 5·18부상자회 회장이 이사회 의결로 5년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데 이어 공로자회 회장까지도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됐다.

5·18공로자회 이사회는 7일 광주시 서구 유촌동의 한 음식점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정 회장과 5·18공로자회 사무총장, 감사 등 3명의 자격을 5년 동안 정지하는 징계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징계 사유로는 정 회장이 지난 2월 19일 이사회와 논의 없이 단독으로 (사)특전사동지회와 화해 행사를 열었으며, 국가보훈부 직원과 비공개 만남을 가진 뒤 ‘정율성 역사공원’ 설립을 반대한다는 신문 광고를 게재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봤다.

지난달 정 회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나는 바지

사장이었다’고 밝히면서 단체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점, 5·18공로자회 서울지부, 경기지부, 대구·경북지부 직원들을 부당해고 했다는 점 등도 이유로 꼽았다.

정 회장은 정관에 따라 징계안 가결 즉시 직무가 정지됐다.

정 회장은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고 징계안을 통과시켰다. 불법적인 이사회 의결 사항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회장은 “특전사 단체와 화해 행사는 행사 이후 3월에 이사회와 총회에서 낱낱이 보고했으며 회장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었다. 부당해고 또한 회장 사비를 털어 합의금을 모두 지불했다”며 “이에 대해 상법위원회에 소명했으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위원을 꾸리지 않는 등 정관에서 정한 절차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전남 학생용 스마트 기기 보급률 전국 최하위권

### 6만 2000대로 보급률 35%

전남도교육청의 학생용 스마트 기기 보급률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민석(경기도 오산) 의원이 전국 17개 교육청으로 부터 받은 ‘전국 학생용 스마트기기 보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교육청은 1조 6257억을 투자해 초·중·고 학생 528만명에게 329만대(보급률 62%)를 보급했다. 각 시도교육청은 향후 3년간 1조 186억을 추가 투자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보급은 교육부가 지난 2월 ‘모두를 위한 맞춤형 교육 실현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2025년 AI 기술 기반 디지털 교과서를 보급하기 위해 디지털 기기 보급 및 학교 무선망 확충에 나서면서 시행됐다.

하지만 전남에서는 330억원을 투입해 6만 2000대만 보급, 보급률이 35.0%에 그쳤다. 전국 17개 지자체 가운데 세종(1만대·16.9%)에 이어 두번째로 낮은 수치다.

전남은 대전(15만 5000대·보급률 100%), 경남(33만 8000대·96.6%) 등의 보급률과도 큰 격차를 보였다. 광주의 경우 1028억원을 투자해 13만대를 보급, 보급률 77.0%를 기록했다.

안민석 의원은 “전국 교육청마다 교육감의 의지와 재정 여건 차이로 보급 격차가 심하게 교육 격차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디지털 기기 보급은 수조원의 예산이 한 번이 아니라 몇 년 주기로 반복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어서 구매부터 관리, 활용, 콘텐츠 개발 등에 대해 교육부와 교육청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초여름 같았던 10월, 강수량 적었다

### 광주기상청 ‘10월 기후특성’ 분석

가을에도 불구하고 한낮 기온이 초여름 날씨인 20도 중반을 기록한 지난 10월 광주·전남 지역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았고 강수량은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광주지방기상청이 발표한 ‘광주·전남 2023년 10월 기후특성’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난달 평

균기온은 16.8도로 평년(16.2도)보다 높았다.

기상관측 전국 관측망이 세워진 1973년 이래 ‘10월 평균 최고기온’에서 보성(23.1), 강진(23.1)은 역대 2위, 흑산도(21.0), 광양(23.4)도 역대 3위를 기록했다.

광주·전남지역의 지난달 강수량은 6.7mm로 평년(34.7~64.0mm)에 견줘 턱없이 적은 양을 기록했다.

순천(8.6), 보성(7.0), 강진(6.3), 광양(3.3)의 경우 ‘10월 강수량 최소 순위’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다. 그 외에도 영광(15.2)이 10월 강수량 최소 순위 2위, 흑산도(12.7)가 역대 4위 값을 갱신했다.

지난달 광주·전남지역은 평년보다 기압골이 동쪽에 치우쳐 발달해 강수량이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기상청은 지난달 광주·전남지역에 약한 대륙고기압과 따뜻한 이동성고기압이 번갈아 영향을 주면서 평균기온이 오른 것으로 분석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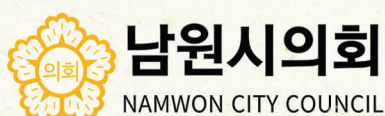
## 「시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남원시의회」

소통과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는 의회

넘쳐나는 희망으로 함께하는 의회

남원시의 발전과 남원시민의 행복을 위해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 남원 명품 농산물 ★

